

분과발표_사회복지 3

태화복지재단 사업기관 지원사업 '섬김과 나눔' 소개 :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중심으로

이근영(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연구소 책임연구원)

I. 들어가며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이하 태화복지재단)은 1921년부터 이 땅에 사회복지사업을 시작한 한국 최초의 사회복지재단이다. 미국 남감리회 여성교부의 마이어즈 선교사가 초대관장으로 파송되었으며 복음전파, 여성교육, 사회사업의 3대 설립 목적을 달성함을 통해 기독교 정신을 전파하고자 노력하였다(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1993). 이러한 전통은 현재의 태화복지재단의 소명현장에 계승되어 있는데,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하나님의 큰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태화복지재단의 사명이다. 91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 태화복지재단의 사업과 운영 방법은 끊임없이 변화하였지만 그 설립 정신이 일관되게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결정과 실천의 본질로 이 사명을 인식하고 원칙으로 지켜 온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명을 기반으로 한 사업수행을 기본 원칙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는 기독교 정신만을 강조할 뿐 프로그램 계획과 수행, 평가 등의 과정과 접근 방법에 기독교사회복지를 구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태화복지재단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지금까지의 인본주의적 관점의 지식과 기술, 가치에 대해 반성적 고찰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사회복지 사업을 개발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게 되었다. 본 발표에서 다루게 되는 태화복지재단 사업기관 지원사업 '섬김과 나눔' 사업 또한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하고 있다.

2011년 태화복지재단은 재단의 존립이유가 되는 소명현장을 재정립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사회복지환경을 반영한 재단의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태화 비전 2015'를 수립하여 현재 전략에 따른 사업 추진 과정에 있다. 이 과정에서 재단의 정체성을 담은 선도적 사업개발의 목표가 수립되었고 이는 태화복지재단 산하 사업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의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합의가 있었다.

태화복지재단은 이미 2007년부터 '사회복지사업 실천역량강화'라는 재단의 발전목표를 달성하고자 재단 산하 사업기관별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육성하는 전략을 수립하였고, 태화복지재단 핵심사업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올해까지 6년간 7개 기관의 사업을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각 기관의 사회복지실천역량 뿐 아니라 유능한 사회복지 전문인력

을 육성하는 성과도 함께 가져왔다(태화사회복지연구소, 2012).

새로운 ‘태화 비전 2015’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태화 핵심사업의 성과는 유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며 재단의 사명과 비전을 더욱 명확하게 담아낼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서의 자리매김할 것에 대한 요청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소개할 태화복지재단 사업기관 지원사업 ‘섬김과 나눔’ 사업은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하게 된 사업이다. 기독교사회복지재단으로 91년간의 실천경험을 가지고 있는 태화복지재단이 2015년까지의 비전을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이라는 주제를 보다 명확하게 언급하며 논의하게 된 배경과 추진 과정, 진행하게 될 사업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아무쪼록 이러한 논의가 기독교사회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재단 및 사업기관에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구체화해나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II. 태화복지재단 사업기관 지원사업 ‘섬김과 나눔’ 소개

구체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연구소에서는 태화복지재단 사업기관 지원사업의 주제 및 운영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외 사회복지 지원사업 관련 문헌자료를 분석하였고 사업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업기관 부장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사업기관 기관장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사업의 주제를 선정하고 전반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부터 실시할 태화복지재단 사업기관 지원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그 연구 내용을 포함하여 태화복지재단 사업기관 지원사업 ‘섬김과 나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항목별로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1. 사업 도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태화 비전 2015’의 첫 번째 목표인 ‘섬김 역량 강화’의 하위목표 중 ‘선도적 사업개발 및 시행’에 대한 ‘전문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전략에 따라 기획되었다.

태화복지재단 산하 사업기관에서 재단의 사명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 평가하여 사회복지계에 선도적으로 보급하는 것과, 이 과정을 통해 사업기관 직원들의 고른 역량의 강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태화복지재단은 기존에 태화복지재단 핵심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해왔는데 재단 산하 기관 중 신청 사업기관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선정하는 공모심사방식을 취해 왔고 주제에 있어서도 기관별 자유주제로 진행하였다. 태화복지재단 지원사업 주제 및 운영방안 수립 연구 결과에 따라 신규 지원사업의 경우 공통주제로 사업기관 모두를 지원하는 지정배분방식으로 변경하여 재단 산하 사업기관의 고른 성장을 도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통주제를 적용하여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표준화된 사업을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통주제 테두리 내에서 재단 산하 각 사업기관의 상황과 필요, 지역사회 욕구에 맞추어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2. 사업 주제

사업기관 부장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사업기관 기관장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단 내 검토와 논의를 거쳐 재단의 사명과 ‘태화 비전 2015’의 목적,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기독교사회복지를 공통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주제 선정의 과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기관 부장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지원사업 주제 선정방식 및 공통주제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재단의 핵심가치나 사명, 비전에 대한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는 측면, 태화만의 브랜드화가 가능하고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태화복지재단 핵심사업에서 제시한 기관별 자유주제보다 공통주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고 기독교사회복지, 사례관리, 지역사회조직화의 3가지 주제가 제시되었다.

이후 제시된 3가지 주제에 대한 사업기관 기관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각의 장점과 제한점 논의하였는데, 이 중 기독교사회복지를 지원사업의 주제로 할 때 장점은 재단의 설립이념(사명, 비전, 정체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산하 사업기관 가치의 통일화가 가능하며 재단의 브랜드(기독교적 가치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 사회복지계에서 기독교사회복지사업을 선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응답은 기독교사회복지를 실천하고자 하는 태화복지재단 각 사업기관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과, 감리교 산하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모태가 되는 재단의 기독교적 가치를 전체 사업기관과 공유하여 통일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 기독교사회복지에 대한 연구 및 실천을 통해 선도적 사회복지사업 실천법인으로서의 브랜드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 합의를 갖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종교적 색채를 드러내는 것의 제한점 및 종교적 문제로 인한 대상자 선정 및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우려, 추상적 주제로 인한 프로그램화의 어려움, 위탁기관에서 사업운영의 제한점 등이 주제에 대한 한계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제한점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관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기독교사회복지사업계획 및 수행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응답이라고 하겠다.

태화복지재단에서는 이상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독교사회복지’는 현시점에서 태화복지재단에서 가장 주력해서 역량을 모아야 할 주제라고 판단하여 지원사업의 공통주제로 진행하고자 결정하였다. 대내적으로는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큰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태화복지재단의 사명과 부합된 주제이며, 대외적으로는 기독교 배경을 지닌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이 다수 존재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현실에서, 기독교사회복지란 무엇인지 개념을 정립하고 바람직한 실천 모델을 제시함을 통해 사회복지계에 선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주제라는 합의가 도출된 것이다. 물론 기독교사회복지라는 주제가 공통으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내용, 대상, 운영방식 등에 있어서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수동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기관에서 기관 상황에 맞게 창의적으로 개발, 진행하고자 한다는 점도 함께

명시하였다.

3. 사업 선정 및 지원 방식

사업비 지원규모와 관련해서는 전체 사업기관을 총 2차에 나누어 각 3년간 매해 1,000만원 한도 내에서(3년간 3,000만원 한도)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1차 지원사업 기간(2013년-2015년)으로 지정된 5개 기관이 기독교사회복지라는 공통주제로 진행하게 되고, 2차 지원사업 기간(2016년-2018년)에는 나머지 5개 기관이 해당 시점에 요청되는 주제에 따라 지원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사업지원기간을 3년으로 한 것은 1년 단위의 사업 지원은 중장기성과를 달성하기 어렵고 사업의 안정화에도 일정 기간의 시간이 요청된다는 사업기관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다. 사업 운영의 기본틀로는 논리모델을 활용하며 사업예산에 직원역량강화비 책정을 의무화하고 사업 관련 연구보고서 및 프로그램 매뉴얼 발행을 포함시킨다. 사업 지원 및 자문을 위해 재단 산하 사회복지연구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기관 실무자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 및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역량을 강화를 도모한다.

기존 태화복지재단 핵심사업과는 달리 재단 산하 10개 사업기관에 모두 사업비를 배분,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 것은 모든 사업기관이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가지고 서로의 전문성을 공유하여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4. 사업 추진 일정

‘섬김과 나눔’ 사업은 지원사업의 공통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재단의 사명, 비전을 점검하고 2015년까지의 태화 미래상인 ‘태화 비전 2015’를 점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또한 사업기관 부장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기관장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사례관리, 지역사회조직의 3가지 주제에 대한 점검을 통해 미션에 부합하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공통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이후 사업기관 실무자들에게 지원사업 설명회 및 기독교사회복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기관에서 세부 주제를 결정하여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담아내는 프로그램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사업신청서 작성 및 논리모델 교육, 연구조사방법론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실무자들의 사업 기획 및 평가 능력 향상을 위한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였다.

현재 1차 사업신청서에 대한 자문을 바탕으로 수정 단계에 있으며, 2013년 1월부터 실제 사업 수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Ⅲ. 섬김과 나눔 선정 세부 사업 소개⁷⁵⁾

75) 본 발표에서 소개하는 세부사업은 태화복지재단 사업기관 지원사업 ‘섬김과 나눔’ 1차 사업계획서에 제출된 내용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힘.

이 장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절차를 거쳐 향후 3년간 진행하게 될 태화복지재단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사업 계획을 소개하고자 한다. ‘섬김과 나눔’ 사업으로 선정된 태화복지재단 산하 3기관의 사업명, 사업의 필요성, 사업 개요, 논리모델을 통한 사업계획을 제시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1) 사업명 및 개요

기독교 영성에 기반을 둔 저소득가정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 좋은 이웃 만들기 ‘도담도담’ 76)

본 사업은 영성적 사회복지실천에 기반을 두어 저소득가정의 부모-자녀 간 상호이해 증진과 의사소통을 향상하여 가족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소외된 이웃을 돕는 건강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사업의 대상은 수서·일원·세곡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저소득 가정 12세대로 하며,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가족단위의 사례관리와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가족여행, 가족요리활동, 텃밭가꾸기와 같은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가족의 역량을 키워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한다. 사랑의 공동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가족의 지지체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웃가정과의 결연 및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한 공동체로서의 성장을 돕는다.

저소득가정의 문제해결을 넘어, 서비스 수혜 대상이었던 가정이 영성회복을 통해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으로 거듭나는 경험은 가족공동체의 회복뿐 아니라 이들이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함으로써 관계와 소통이 있는 지역사회를 이루는데 주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의 공동체는 기독교 사랑실천의 허브로써 지역사회에서 섬김과 나눔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76) 도담도담은 ‘어린아이가 탈 없이 잘 놀며 자라는 모양’을 뜻하며, ‘도담도담하다(어렸이 모두 아무지고 탐스럽다)’의 어근으로 쓰임. 사랑의 가족공동체 실현을 지향하고 있는 본 사업을 나타내는 의미를 갖고 있음.

2) 사업의 필요성 및 문제분석

가. 지역사회 내 저소득가정 실태와 문제양상

2010년도 강남구 통계연보에 따르면, 강남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9,974명으로 2009년 9,843명에 비해 전년대비 131명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율은 총 인구대비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강남구 내 상당수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32.7%)가 본 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수서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일원본동, 일원1동, 일원2동, 세곡동)의 비율을 합산하면, 54.7%에 이른다. 저소득가정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시킬 때 본 기관의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가정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강남구가 타 구에 비하여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은 것을 감안한다면 일부 지역에 저소득가정이 편중 또는 집중되어 있는 현상은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소득양극화가 교육격차와 문화적 차이로 이어져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빈곤으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 압박은 부부갈등, 부모 자녀 갈등, 사회관계의 손상을 일으키기도 한다(어주정, 정문자, 1999). 일반적으로 저소득가정 부모는 일반가정에 비하여 스트레스가 많으며 심리적으로 우울하고 취약하여 일반가정 부모에 비해 자녀에게 비일관적이고 처벌적 양육태도를 나타내거나 방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경희, 황혜정, 1998). 이는 결국 아동의 발달 및 적응 문제를 일으키게 되거나 심리적, 사회적 박탈감을 갖게 하기도 하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아동에 대한 서비스제공 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교육과 개입이 필수되어야 하며, 이 과정이 충분히 다루어지는 것이 가정이 행복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나. 기독교적 인간관을 반영한 가정회복의 필요성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고(창 1:27), 동시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더불어 그리고 함께 살게 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이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이다. 창조의 섭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간됨의 본질은 영성과 공동체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유장춘, 2010).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셨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인 가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핵가족화, 이혼율 증가, 독신자와 결손가정, 노인세대의 증가 등의 이유로 전통적인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 붕괴되어 사회적으로 비극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있다. 가정이 애정, 사회화, 교육 등의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도인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은 복음을 다음세대에 전하는 것이다(신 6:6-9). 성경에서 부모의 교육적 책임을 명백히 말씀하고 계시며, 부모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박진국(2008)은 가정 내 부모의 자녀교육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중대한 의무이며, 교회와 학교가 종교교육을 더불어 할 수 있으나 결코

가정교육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하였다. 위기에 처해있는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성과 가정공동체의 회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서 본 사업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영성적 사회복지실천에 기반을 둔 사례관리와 교육 및 다양한 가족활동을 통해 가정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한다.

다. 가족 전체를 감싸 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개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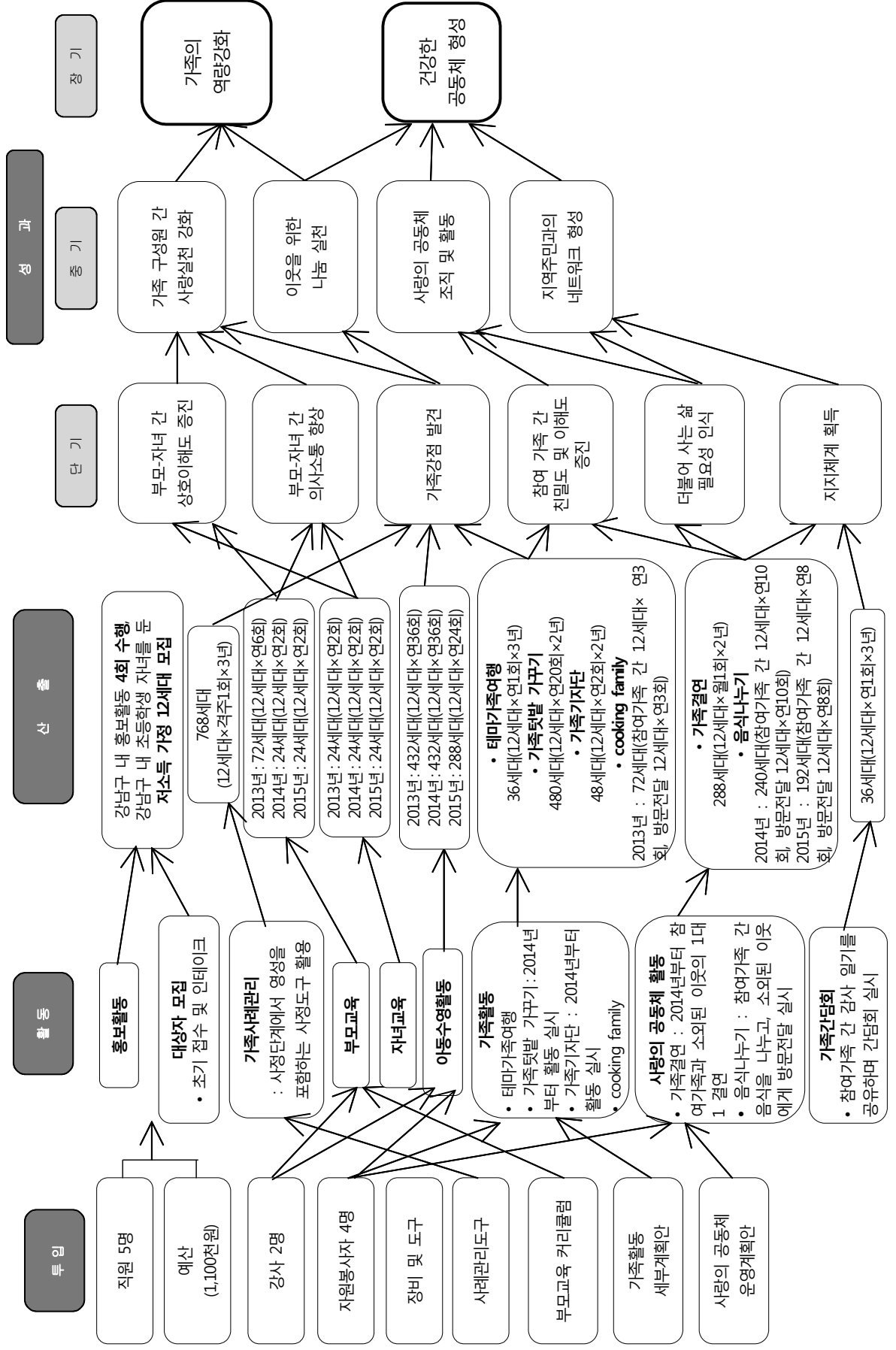
저소득가정을 돕는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 제공기관은 여러 곳이나, 대부분의 사업이 아동, 청소년 및 성인 개개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의 분절이 일어날 수 있고, 가족 내부의 역동이나 관계성을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가족대상의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주로 아동들과 부모가 함께 외부로 나들이를 가거나 부모를 초청하는 행사를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참여이후 긍정적인 변화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김인숙(1994) 연구에서는 가족은 여러 다양한 대상층- 성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을 포함하기 있기 때문에 가족전체를 지향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개별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한다 해도, 삶의 가장 중요한 실존적 터전인 가족의 변화나 가족에 대한 지원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가족문제는 재발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정 내 양육자를 중심으로 가족구성원들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가족을 단위로 한 사례관리를 병행하여 실천한다면 클라이언트 가정이 진정으로 원하는 욕구를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으므로 주체적,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효과적일 수 있다.

라. 지역사회 내 저소득가정의 지지체계에 대한 높은 욕구

본 기관의 가족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저소득 가정의 부모들과 평가의견을 나누는 결과, 여가프로그램을 제공받는 것을 넘어 부모들이 올바른 부모역할에 대해 함께 배우고,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프로그램 참여했던 저소득가정의 대부분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또는 장애를 가진 부모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적, 정서적으로 지지가 필요한 집단이기도 하다.

지역사회 내 비슷한 환경에 있는 가족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갖고 바람직한 변화에 동참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듯이, 저소득가정 부모들이 역할의 어려움을 나누고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호 지지체계를 마련해준다면, 저소득가정의 역량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 내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과 통합을 이루어갈 수 있겠다.

3) 논리모델에 기반을 둔 사업 개발 계획



2.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

1) 사업명 및 개요

지역교회를 기반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문화 만들기 ‘허브태화’

‘허브태화’ 사업은 인천시 서구 내 교회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실천하여 지역사회 기반을 바탕으로 한 지역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자 한다.

기존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적부조와 민간 사회복지 시설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졌다면, 좀 더 지역사회 자원(인/물적)과 우리 이웃이 함께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형 복지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①지역의 욕구 및 특성을 반영, ②교회와의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 협력 및 진행, ③교회의 자원 활용을 통한 이웃 관계망 형성을 통해 복지 서비스 체계부터 교회와 함께 구축하고 실천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④지역 내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이용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며, ⑤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관계망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다.

2) 사업의 필요성 및 문제분석

가. 교회와 지역사회복지관과의 협력 필요

교회는 하나님과 지역사회가 만날 수 있는 통로이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인 동시에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와도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⁷⁷⁾

〈표 1〉 교회의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기관과의 협력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공식적으로 지역사회복지관과 협력활동	전체	212	100%
	그렇다	68	33.3
	아니다	136	66.7
	계	204	100

교회의 지역사회복지기관과의 협력관계에 대해서는 위의 〈표 1〉과 같이 “그렇다” 68명, “아니다” 136명으로 공식적으로 지역사회복지기관과 협력하여 활동하고 있는 교회는 응답자의 1/3에 불과하며 2/3은 지역사회기관과 공식적인 협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⁷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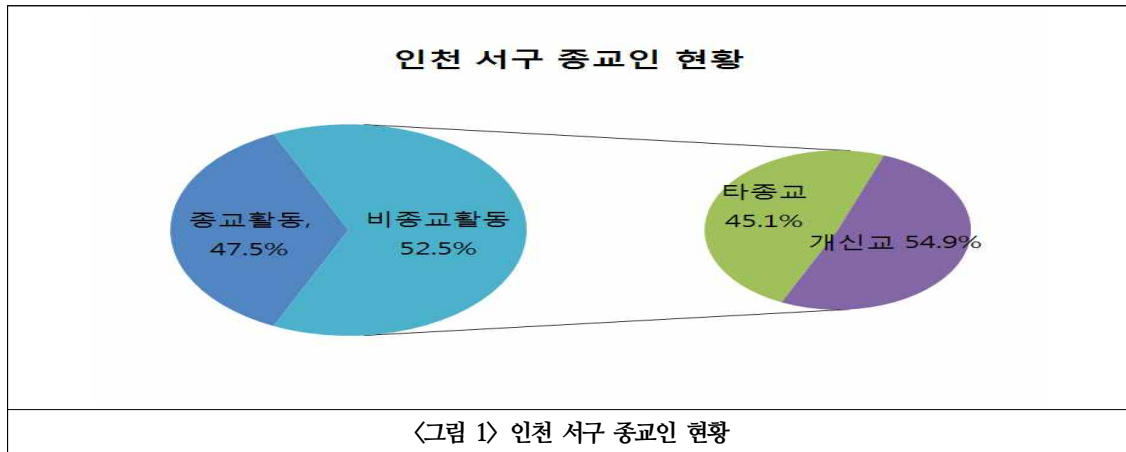
교회는 지역 안에 자리하고 있으며 신도 역시 지역사회를 터전으로 활동하고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 즉, 교회의 회원이 지역주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료에 따른 결과를 따르면 교회와 지역복지관은 자신들의 영역에서만 복지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교회는 인적, 물적 자원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욕구가 높아지며 참여율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교회가 가진 자원

77) 한국교회의 지역사회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 개신교를 중심으로 (최봉춘, 2002)

78) 목회자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인식과 참여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강계수, 2009)

에 비해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활용체계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본 복지관은 ‘허브테화’ 사업을 바탕으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수혜서비스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교회 자원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인식 저조 문제



〈그림 1〉에 따르면(출처 : 인천통계, 2011) 인천시 인구의 4명 중 1명은 개신교인으로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교회의 지역사회활동에 대하여 목회자들에게 질문한 결과 활발하다는 응답은 15.2%에 불과하였고, 57.2%의 목회자들은 교회의 지역사회복지활동이 저조하다고 하였다(이형진, 2008). 또한, 교회가 빈곤을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개인적인 문제로 보는 경향이 짙으며 사회정의나 사회개역의 차원이 아니라 자선사업 차원에서 주로 실시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장안종합사회복지관, 2010).

현재에는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교회가 지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복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 하는 의식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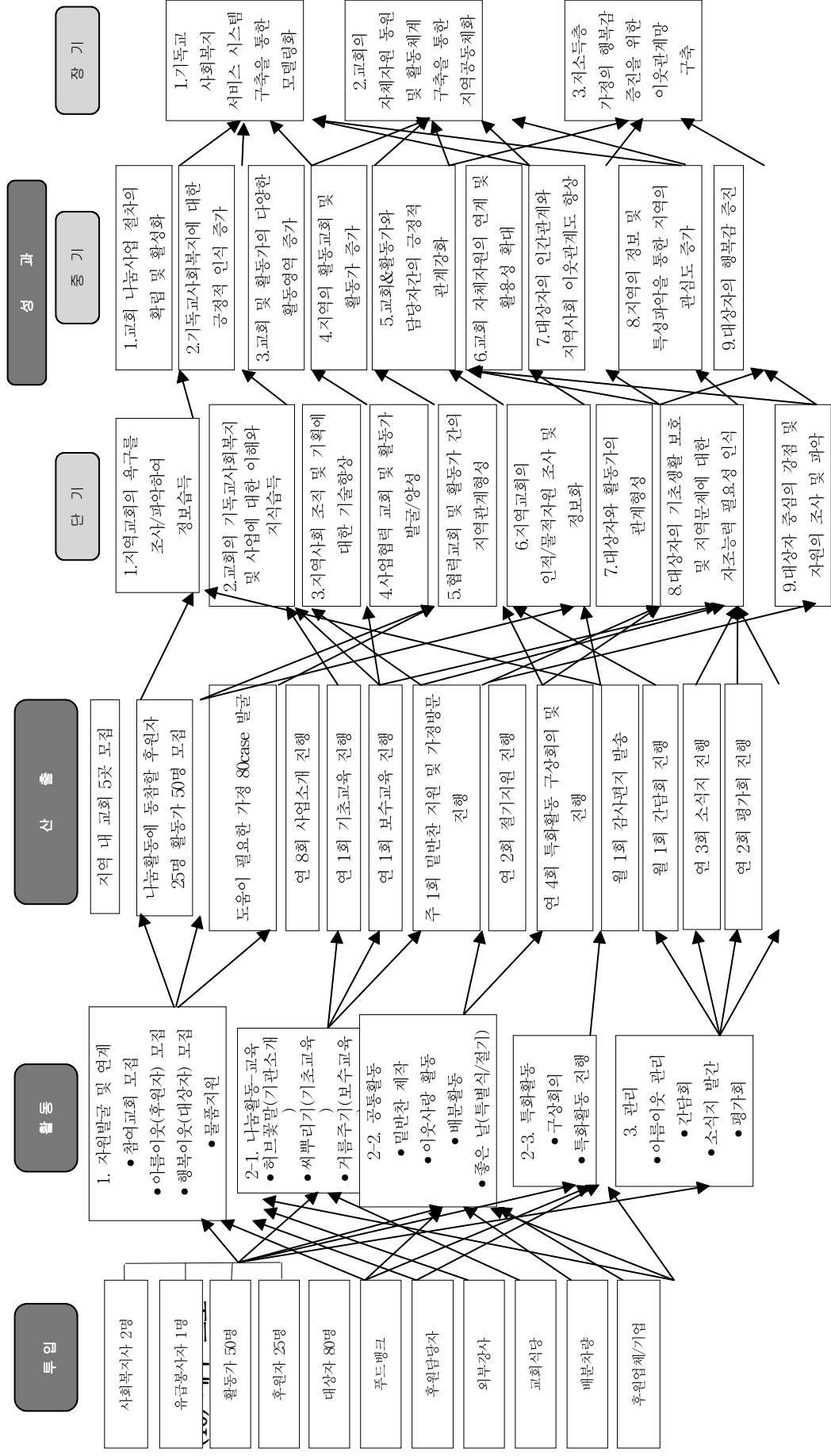
다.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와 이웃 간 관계망 구축으로 지역공동체 형성 필요

대상자는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불편하여 기초생활에 대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움직임에 거리가 한계적이다 보니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러한 부분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 집에는 항상 손님이 찾아옵니다. 반찬을 나누는 이웃, 움직임을 도와주는 이웃, 물품을 나누는 이웃, 더불어 아이를 좋아하는 대상자에게 아이돌보미를 부탁하는 이웃 등 많은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물론 약속도 없이.. 그래서 대상자 집의 문은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이웃들이 나누는 반찬, 물건보다는 이웃사람과 함께 하는 마음과 환경이 더욱 좋아서 대상자 자신도 나눌 것이 없나 하고 고민하여 아이돌봄으로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이웃들의 방문과 관계가 좋아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더 느끼기보다 더욱 건강하게 관계를 하고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자의 집은 스트레스나 우울감보다는 밝고 건강한 웃음이 가득합니다. 대상자가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본 기관의 담당자도 발로 마음으로 뛰려 합니다.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 행복바이러스 사업 경험적 사례-

위의 경험적 사례처럼 이웃들의 방문으로 대상자의 관계는 더 형성되고 확장될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대상자도 무엇을 도우려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 것 같다. 요즘 소통과 관계가 부족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과 자신의 환경을 탓하며 많은 사회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사회 부조리와 제도의 이유가 크겠지만 현재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로 할 수 있는 일을 만드는 일인 것 같다. 이에 이 사업은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관계망을 구축하여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논리모델에 기반을 둔 사업 개발 계획



3. 대전기독교사회복지관

1) 사업명 및 개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문화·정서지원 사업 : ‘Joyful 하모니*’

*하 : 하나님의
모 : 모습을
니 : remind(기억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알려준다

목 표	2013년		2014년		2015년
음악적 재능 개발	1. 홍보 및 이용자 모집 2. 오리엔테이션 - 사업설명회 - 소그룹모임 3. 연주능력 향상지원 - 정기적 악기파트별 개별화 교육 - 연1회 클래식 음악회 관람	→	1. 단원 20명 유지 3. 연주능력 향상지원 - 정기적 악기파트별 개별화 교육 - 연 1회 클래식 음악회 관람 - 연1회 세대 간 통합 연주회	→	1. 파트추가를 위한 홍보 및 이용자 모집 2. 오리엔테이션 - 사업설명회 - 소그룹모임 3. 연주능력 향상지원 - 정기적 악기파트별 개별화 교육 - 클래식 음악회 관람 - 연1회 세대 간 통합 연주회 - 연 1회 독주회
포레 관계 기술 습득	4. 긍정적인 포레관계형성 - 포레 관계기술 프로그램 진행 - 자발적 자치활동 - 1회기 음악캠프	→	4. 긍정적인 포레생활지원 - 포레 관계기술 습득 프로그램 진행 - 자발적 동아리 결성 - 2회기 음악캠프	→	4. 긍정적인 포레생활지원 - 포레 관계기술 습득 프로그램 진행 - 자발적 동아리 활동 - 3회기 음악캠프
기독교 세계관 이해	5. 기독교 음악이해 증진 - 기독교음악 교육 - 기도 멘토 (직원→청소년)	→	5. 기독교 정신에 대한 긍정적 이해 - 기독교음악 교육 - 연 1회 발표회 - 기도 멘토 (직원→청소년)	→	5. 기독교 세계관 형성 - 기독교음악 교육 - 통합음악 발표회 - 기도 멘토 (직원→청소년)

2) 사업의 필요성 및 문제분석

가. 청소년들의 자율성과 사회성 결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0 한국청소년 핵심역량진단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수준은 0.31점(1점 만점)으로 36개국 가운데 35위로 나타났다.⁷⁹⁾ ‘관계지향성’, ‘사회적 협력’, ‘갈등관리’ 등 3개 영역에 국가별 표준화 점수⁸⁰⁾를 매겨

이 결과를 평균해 계산한 결과 한국 청소년들은 ‘관계지향성’과 ‘사회적 협력’에서는 36개국 가운데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반면 청소년들의 읽기, 수학, 과학적 소양을 측정한 지적 도구 활용 역량은 한국이 핀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학생은 지적 영역에서의 시험 성적이 높은 반면 사회적 관계 규범에 의한 점수가 낮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 수월성과 경쟁력만 내세우는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가 나은 사회적인 문제로 청소년의 자율성과 사회성을 신장 시킬 수 있는 정책이나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나. 청소년 시기의 심리적·정서적 안정 도모

청소년기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 감정적 기복이 심하고, 불안정한 정서적 변화를 경험한다. 이는 청소년들의 생리적·신체적 변화와 심리적 혼동 그리고 사회적 역할의 변화와 가치 체계의 변화 등이 그들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서의 불안정은 청소년의 학교학습과 사회적응, 인간관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정서발달과 그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한 정서 발달을 돕는 문화·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 청소년의 낮은 행복지수

최근 2012년 5월 4일 한국방정환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물질적 행복지수는 OECD 18개 국가 중 4위를 차지한 반면, 주관적 행복지수는 평균점수 65.98점으로 23개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34점이나 낮은 점수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주관적 행복지수란 ‘학교생활 만족도’ ‘삶의 만족도’ ‘소속감’ ‘외로움’ ‘주변상황 적응’ 등 6가지 영역에 대한 응답률을 수치화한 것인데 조사한 4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청소년들이 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외로워하며 불만족스러워하는지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자존감이 떨어진 청소년들은 비행, 폭력, 자살 등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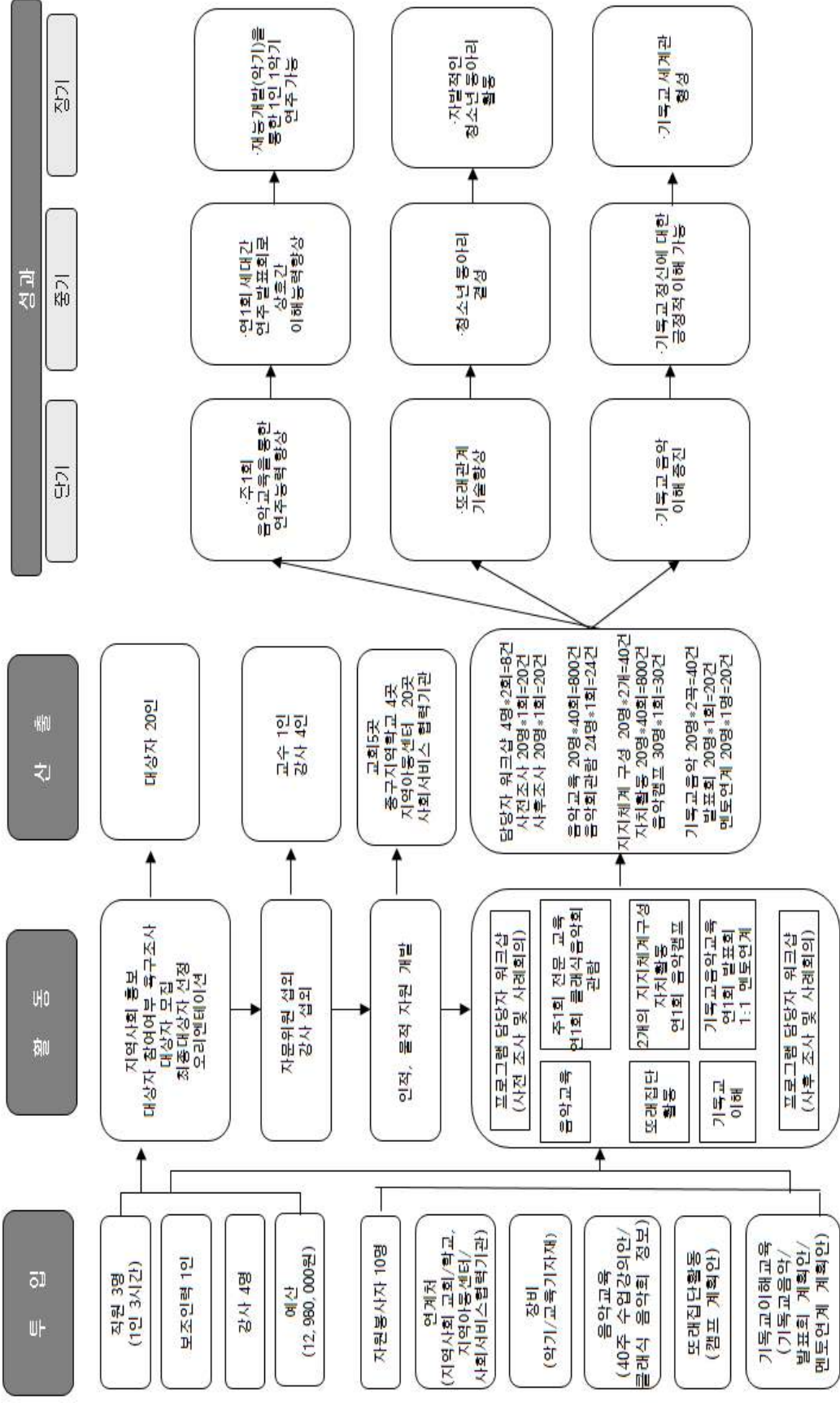
어릴 적부터 시작된 좋은 상급학교 합격을 위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출세하고 엘리트 1등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가족과 주위의 희망과 그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 대학졸업 후 취업에 대한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상대적으로 여가나 취미활동을 통해 건강하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여유나 청소년문화가 부족함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문화·정서지원사업 ‘Joyful 하·모·니’는 이처럼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불완전한 정서를 순화시켜 안정감을 갖게 하고, 자기표현이나 의사전달을 잘 하지 못해 대인관계에 자신감이 없는 청소년에게 음악활동이 매개체가 되어 긍정적이고 원만한 관계형성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79) 연합뉴스, ‘한국 청소년 ‘더불어 사는’ 능력 세계 꼴찌’,(2011.3.27)

80) 국제교육협의회(IEA), 세계 36개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 14만600여명을 설문조사, (2010).

(3) 논리모델에 기반을 둔 사업개발 계획



IV. 나오며

지금까지 태화복지재단 사업기관 지원사업 ‘섬김과 나눔’의 추진 배경 및 절차,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사회복지라는 주제를 재단 차원에서 사업기관 지원사업의 공통주제로 수립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으며 실제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적용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소개하였다.

그러나 이 발표에서 소개한 내용은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의 논의에 불과하다. 향후 3년간 실제적인 사업 수행을 통해 그 과정과 성과에 대한 논의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도 기독교사회복지에 대한 개념 정립이나 사회복지계에서 바라보는 기독교사회복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지만 태화복지재단 사업기관 실무자들이 실제 사업을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진지한 고민과 노력 가운데 이를 확립해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추후 이 발표에서 소개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평가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며 이러한 태화복지재단의 노력이 우리나라 사회복지계에서 기독교사회복지에 대한 담론을 활성화하고 시범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평가를 통해 그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고자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김경희, 황혜정(1998). 저소득층 아동의 정서 행동 문제와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1), 131-151.
- 어주경, 정문자(1999).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2), 21-40.
- 유장춘(2010). 기독교사회복지의 영성적 실천과 인간성 회복. 교회사회사업 14, 29-61.
- 이형진(2008). 한국교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방안 연구 한국교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방안 연구. 서울 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안종합사회복지관(2010). 지역주민의 실천역량 강화를 위한 크리스찬 복지 아카데미 사업보고서,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장안종합사회복지관.
-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1993).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의 역사.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 태화사회복지연구소(2010). 논리모델에 근거한 태화복지재단 핵심사업 보고서.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 태화사회복지연구소(2012). 태화복지재단 핵심사업 평가연구보고서.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 태화사회복지연구소(2012). 태화복지재단 사업기관 지원사업 ‘섬김과 나눔’ 1차 사업신청서. 태화복지재단.